

가정 간호의 마음가짐

- 와병 중인 노인이 있는 가정의 부담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 심신이 피로해지고 불안해 지며 병이 생겨 같이 드러눕는 경우도 적지 않다.
- 노인병의 간호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구전이라는 각오를 갖고 장기 체제에 대비하는 것이다.
- 또, 혼자서 고심하지 말고 전문가로부터 간호법을 지도 받거나 지역사회 복지 시설도 활용하도록 한다.

*바람직한 가정 간호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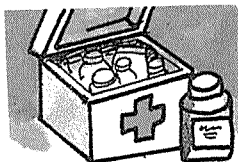
1. 병의 상황에 따라 무엇이 중요하지, 손을 쓰지 않아도 되는지를 판단한다.



2. 한사람이 지나치게 간호를 하지 않도록 간호나 가사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간호자의 스트레스, 피로를 덜는다.



3. 간호용품은 과부족 없이 준비한다. 무엇인가의 부족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그동안의 노력을 허사로 만든다.



4. 가족의 건강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공동의 고생을 덜기 위함)



5. 일상생활과 간호의 일과를 조화시켜 계획을 세우고 노년과의 대화를 지속한다.



6. 필요 시에 즉시 응할 수 있도록 호출 벨을 달아둔다.



병상(病狀) 관찰의 포인트와

의사와의 연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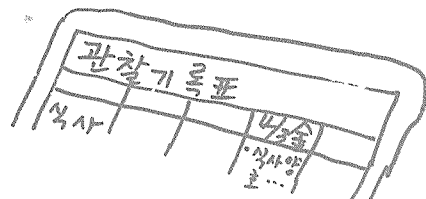
* 가족의 정확한 관찰이 의사의 진단을 돕는다.

- 의사가 환자를 접하는 시간은 잠깐
- 매일의 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이 노인의 하루 중의 변화, 상태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
- 가족의 적절한 관찰은 의사의 진단과 환자의 조기 회복을 돕는다.
- 노인 중에는 참을성이 많아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 때도 있고, 노망이 든 경우는 본인이 증상을 호소할 수가 없다.
- 그러나 노인은 극히 미약한 발열이나 설사라도 탈수증상이나 의식 장애 등의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

* 관찰의 체크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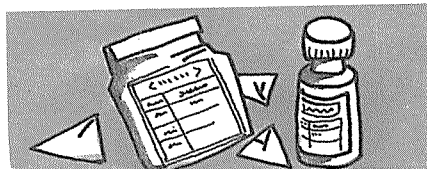
- ① 식욕, 먹는 방법, 먹는 양, 구미의 변화
- ② 배설량, 횟수, 성상(性狀)
- ③ 열의 상태, 호흡상태, 맥박수와 성상(性狀), 기침, 담, 부종, 눈썹, 구역질, 통증
- ④ 표정, 언동, 수족의 흔들림, 침흘림, 의식이나 정신 상태
- ⑤ 수면의 상태와 시간
- ⑥ 체중

※ 아래 그림과 같은 관찰 노트를 준비하면 증상의 경과를 잘 알 수 있다.



* 의사와의 바람직한 연계법

- ① 노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항상 상담이 가능한 가정의를 둔다. (평상 시부터 진찰을 받아 몸의 상태를 파악해 두도록 할 것.)
- ② 가족은 주치의로부터 병환과 기타 특징, 약의 내용이나 부작용, 향후 관찰되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해 둔다.



- ③ 매일의 병상 관찰 중에서 특별한 병변은 즉시 알린다.
- ④ 질서정연하게 경과를 알 수 있도록 증상의 동태를 간단히 기록해두고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



⑤ 주말이나 휴일에는 휴진이나 의사 부재로 연락이 되지 않는 일이 많으므로, 병환에 지장이 될 상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 전에 의사에게 지시를 받아두는 것도 중요하다.